

##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9.19~20)

### 1. 한일 무역갈등 관련

#### 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팡배신문(澎湃新闻)은 한일 양국 정부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<sup>1)</sup>
- o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하여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
- 중국신문망(中国新闻网)은 악화된 한일관계로 인해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8월 대비 약 50% 감소했다고 인용 보도<sup>2)</sup>
- o 중국과 동남아행 항공편을 늘려 줄어든 한국인 관광객을 보완하겠다는 업계의 말을 인용하며 한일 갈등이 일본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고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도
- 신화사 신매체(新华社新媒体)는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여 양국의 무역분쟁은 한층 더 격화됐으며,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경제 영역에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인용 보도<sup>3)</sup>
- o 한국의 WTO 제소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게 할 수는 없지만, 향후 일본의 수출 허가 심사 시 신중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조치는 될 것이라고 인용 보도
- 대중망(大众网)은 한일 관계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조정 에 나서야 한다는 미국 측 발언에 대한 중국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<sup>4)</sup>

1) 「日媒：联大会议期间日韩不举行首脑会谈，外长间保持沟通」, 『澎湃新闻』(2019. 9. 20)

2) 「日韩关系恶化导致韩国访日游客骤减 日方认真应对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9. 20)

3) 「日韩贸易摩擦再升级 互有损失」, 『新华社新媒体』(2019. 9. 19)

4) 「日韩闹矛盾 美国要拉架? 专家：根本没实质性举动」, 『大众网』(2019. 9. 19)

○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呂耀东 연구원은 조정 역할에 대해 언급한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‘미국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이야기는 해왔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조정은 하지 않았고 이는 모두 거짓말이다’ 라고 언급함.

\* 呂耀东 연구원은 미 차관보의 발언 목적이 한미일 동맹을 공고화하기 위함이라고 분석

- 금십수거(金十数据)는 한국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심사 검토가 끝나봐야 수출 허가를 확신할 수 있다고 인용 보도하는 한편 일본이 중국과 큰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<sup>5)</sup>

○ 한국 측 관계자는 일본이 3종의 반도체 소재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으나 아직 물건을 보내지 않았으며 (고의로) 수출을 늦추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함.

\* 이에 수출 심사 검토(90일)가 끝날 때까지는 실제로 수출을 허가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

○ 국제 반도체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라 올해 2분기 일본과 한국의 반도체 제조설비 출하량이 동기 대비 각각 47%, 39% 감소한 반면 중국의 출하량은 지난달 대비 43% 증가했다며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

○ 한편 9월 4일 기준 중국은 인프라, 물류, 금융 분야에서 일본 기업 및 금융 기관과 약 50여개의 MOU를 체결(180억 달러 이상)하였다고 전하며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언급

---

5) 「日韩关系缓解? 90天审查窗口仍未关闭, 日本却和中国签下百亿合作」, 『金十数据』(2019. 9. 19)